

서울적십자병원, 협력병원과 의료서비스 강화 업무협약

✎ 정희석 기자 | ⌚ 승인 2024.12.10 18:07



[라포르시안] 서울적십자병원(원장 채동완)은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병원 상호 발전 도모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훈위탁의료기관·병의원 등 총 11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적십자병원과 이들 협력병원은 ▲상호 환자의뢰 ▲의료진 간 상호자문 ▲취약계층 통합지원 서비스 협력 등을 긴밀히 추진

할 예정이다.

채동완 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으로 인해 의료기관 간 진료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확립함으로써 환자에게 연속성 있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적십자병원은 긴밀한 진료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중앙대병원 등 상급 의료기관부터 서울특별시 동부병원·강북으뜸병원 등 병의원까지 총 18개 의료기관과 진료 협약을 체결했다.



정희석 기자 leehan28@rapportian.com